

책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TV가 책의 독자를 앗아가는 '약탈자'라는 공포감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출판가에서도 "이다" "아니다"의 잦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공통된 관심사인 것 같다. 최근 소개된 한 해외출판 정보는 출판이 어떻게 이 공포감을 극복하고 TV와 친구와 같이 상호보완적인 존재로 다가설 수 있는지를 보여줘 흥미를 끈다.

영국 BBC방송국의 문예담당PD인 제임스 런시는 '물과 기름—TV와 관계된 책의 문제' 제목의 칼럼을 통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응용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몇가지 언급을 하고 있다. 독서는 길고 고독한 인내의 개인적 행위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까지도 엄청난 흡인력으로 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야 마는 TV의 위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 독자를 시청자로 잃어버렸다.

이 부분은 분명 물과 기름의 관계다. 그런데 이 약탈자가 가지는 흡인력(재미)과 파괴력(영향)은 그 소개가 책이 될 때 출판에 있어선 필요악의 존재로 변신한다. 런시는 TV프로에서 한번 언급된 책이 판매에 있어 눈에 띄게 달라지는 예를 드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다를 게 없다. (요즘 한 인기드라마에서 루 살로메 이야기가 나오자 오래 전 매기가 끊긴 이 책의 주문이 쇄도한다거나, 일전에 한 코미디 프로에 책소개 코너가 있었는데 방송후 출판사를 묻는 전화가 쇄도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그에 따르면 영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책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다고 한다. 요즘 방송중인 것 만으로도 South bank show는 20세기의 유명작가들을 시리즈로 방영하며, Book Prize는 매주 여

섯권의 책을 다양하게 전한다. The late show는 여러 예술장르를 다루지만 책의 비중이 제일 높고, Book Mark, Without wall, Omnibus, Areana 등은 작가 중심의 소개를 하는데 이 가운데는 황금시간대에 편성돼 있는 것도 적지 않다. 필자는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토론이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살아남는다면, TV가 가치없는 유머와 지속적인 연예물, 오락게임 일색으로 침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소비적인 대중문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책과 방송의 밀월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방송가에도 심야시간이나 교육방송에 밀려있는 게 흠이지만 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오로지 '책' 하나를 주인공으로 한 장장 4시간 30분짜리의 'book쇼'가 펼쳐져 놀라움을 선사했다. 이것을 보며 책과 TV가 행복한 밀월에 젖어 대중문화를 가꾸어가는 영국을 떠올리게 되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연상이리라.

—정혜옥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135호 / 1993년 9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蕙玉 崔兌源
 李聖洙 金重植 裴銀姬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銀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攸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공회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타이피아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
 동 105-2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滄昊
宋相庸	申福龍	慎錫履	安秉永
安輝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璟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靉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爽鍾	鄭雲瑛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震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 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은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중국 무한대학의 교수진이, 중국 문화를 대표함과 동시에 중국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30권의 명저를 소개한 책 「중국을 움직인 30권의 책」(王余光 엮음, 한인회 외 옮김, 지영사)은, 「상서」로부터 사서삼경은 물론 모택동의 「신민주주의론」에 이르는 중국사에 길이 남을 책들이 소개돼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책들의 논란과정과 그 진위, 그리고 역사에 미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어 무척 흥미롭게 읽힌다. 여기에 그 일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아큐정전」은 노신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컸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21년 말부터 1922년 초에 걸쳐 씌어졌다. 당시 북경에서 「신보부간」의 편집을 맡았던 손복원은 노신에게 이 잡지의 '즐거운 이야기'란의 원고를 청탁하였다. 그리하여 노신은 여기에 불후의 명작 「아큐정전」을 쓰기 시작했다. (중략)

후에 소설집 「납함」에 수록되어 형상화에 성공한 등장인물도 없었으며, 그 인물의 이미지와 아름다움으로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한 작품도 없었다.

「아큐정전」이 세상에 나온 이래, 아큐의 전형적인 속성, 아큐의 정신승리법의 실질과 그 근원, 아큐의 혁명문제, 작품의 주제 등의 방면에

종의 판본이 나오기도 했다. 30년대의 소련, 50년대의 일본, 70년대의 프랑스에서는 이 소설이 극본으로 개편되어 정식으로 연출되었다. 심지어는 이탈리아에서 출판된 「풍피아니 작품 및 인물문학사전」에서도 「아큐정전」과 '아큐'라는 항목을 찾을 수가 있어 「아큐정전」이 해외에 파급된 큰 영향력을 짐작하게 해준다. 국내판본의 경우는 숫자를 세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아큐정전」은 신해혁명을 전후한 10여년 간의 중국의 사회와 생활을 거시적인 역사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큐의 행장을 기본적인 작품의 줄거리로 하여, 거시와 미시, 역사와 현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쪽의 생생한 생활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근심과 울분이 가득한 역사의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중략)

분명 '5.4' 이래의 문학작품 중에서 「아큐정전」처럼 중국현대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작품은 일찍이 없었다. 또한, 아큐만큼 이미지 형상화에 성공한 등장인물도 없었으며, 그 인물의 이미지와 아름다움으로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한 작품도 없었다.

「아큐정전」이 세상에 나온 이래, 아큐의 전형적인 속성, 아큐의 정신승리법의 실질과 그 근원, 아큐의 혁명문제, 작품의 주제 등의 방면에

폭넓은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다년간의 연구의 사상적 방법적 제한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은 간단한 계급분석의 방법과 정치학적 영역에 한정된 연구를 함으로써, 「아큐정전」의 진실된 숨은 뜻과 그 중요성과 영향력의 실체에 대해서는 깊은 토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들은 「아큐정전」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아큐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 속에 침투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를 작가의 정신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신은, 한 사람 한사람마다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지는 않았던 국민성의 문제를 파악하였던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의의를 찾자면, 「아큐정전」은 노신이 일생동안 주력한 국민성 개조라는 거대한 역사적 주제를 담은 소설이며, 그 속에 형상화된 아큐의 이미지는 사상적 형태의 예술적 전형이고 각성하지 못하고 낙후된 국민정신의 표상이라는 데 있다.

그는 바로 「현대 중국인들의 영혼을 묘사하여 이렇듯 침묵하는 국민의 혼을 그리려고 하였으며, 다만 나의 감각에 의지하여 고독하게 써나감으로써 중국의 인생과정을 눈앞에 펼쳐 보이곤 하였다」(「노신전집」, 제7권, 81~82쪽)라고 「아큐정전」을 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

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기와 목적의 결정체인 노신의 「아큐정전」은 바로 그가 말한 「침묵하는 국민의 영혼」의 형상화이자 형태화이며 의인화인 것이다. (중략)

중국인은 아큐 식의 정신적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필요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비판—창조」가 서로 결합된 이성적인 구조를 수립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근대화 현대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결한 사상적 에너지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아큐정전」이 세상에 나온 것은 한편으로 자신이 아큐와 같다고 생각하는 중국인의 약점을 지닌 몇몇 사람들을 안절부절하게 만들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자기 반성의 길로 인도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인의 민족성과 역사발전의 과정을 더듬어 보고 민족의 오늘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민족성을 전망하여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였다. 만약 아큐 식의 인물이 탄생되는 사회와 사상의 씨앗을 철저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아큐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하여 뻗어 나간다면, 중국인의 인격적 현대화는 결국 빈말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아큐정전」은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다.